

학종행 급행열차 2015개정교육과정 폐기하고 수능정시 확대하라!

- 2015개정교육과정은 학생부종합전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전 정권에서 수능 무력화와 학종 100%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교육과정입니다.
- 2015개정교육과정은 ‘고교내신성취도평가’와 ‘고교학점제’를 대전제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위한 현장의 준비는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역량 있는 일부 고교 중심의 고교 카스트 제도를 불러올 것입니다.
- 이런 상태에서 2015개정교육과정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내년 선거 이후 수능을 전과목 절대평가로 개편하여 무력화하고 공정한 정시를 고사시켜 100% 학종으로 가려는 김상곤 교육부총리의 꿈수로써, 당장 폐지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원점 재논의를 통하여 수능을 통한 대입 전형 확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1. 2015개정교육과정은 사실상의 고교카스트 제도이다

2015개정교육과정은 교과를 공통, 일반선택, 진로선택으로 나누고, 이중 선택 과목만 무려 총 90개가 넘는다. 이렇게 세부 단위로 쪼개진 과목을 개설할 역량이 있는 일선 고교가 과연 몇 개나 되겠는가. 일반고 아이들은 사실상 교과목 선택에 제한을 받게 되고, 특목/자사고와 대입에서의 경쟁은 더욱 열위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는 고교를, 특목/자사고, 대도시 명문고, 그리고 일반고로 엄격히 서열화하는 고교 카스트 제도이다.

2. 2015개정교육과정은 불투명, 실패한 입시 전형인 학종 확대를 위한 꿈수이다

쪼개진 교과과정으로 인해 공통 과목 위주로 수능이 출제될 수 밖에 없고, 이에 따라 대입에서의 수능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해지고, 어떤 교과를 이수했는지에 대한 학생부의 영향력이 절대적일 수 밖에 없다. 그런데 2015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사의 주관적 평가, 학생들간의 복불복을 야기하는 ‘수행평가’의 비중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많은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투명성, 감감이 전형이라는 오명을 더욱 유발시키는 불공정 교육과정이다.

3. ‘수행평가’ 중심의 2015개정교육과정은 아이들을 교사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2015교육과정은 기존에도 문제가 많았던 교사의 주관적 개입 및 평가를 더욱 극대화하고 있다. 이미 학생부를 기반으로 아이들을 협박하는 교사의 폐해가 난무하고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제어 시스템 없이 교사의 권한을 극대화하고, 아이들을 노예로 만드는 본 개정교육과정에 반대한다.

4. 2015 교육과정의 대전제인 내신성취도평가의 기반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내신성취도평가는 2015교육과정 진행의 기본 전제이다. 기본 틀이 없는 졸속 교육과정 진행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가뜩이나 전쟁터와 다름없는 피말리는 내신 상대평가 전쟁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는 격이다.

5. 조기 적성 계발이라는 미명하에 아이들의 재도전 기회를 박탈한다

2015 교육과정은 겉으로는 문,이과 통합 교육을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세부 선택과목에 따라 진로선택이 달라지게 짜여있다. 이런 교과과정으로는 진정한 통합 인재를 가르칠 수 없으며, 이는 100세 시대에 배움과 성장에 따라 다양한 진로를 고민해야 하는 청소년기의 진로선택권의 박탈하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진로를 너무 일찍 선택하도록 강요하므로 조기 교육과 조기 계발을 위해 사교육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